

#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 '내사람 심기'

## 안풍에 지지율 하락 불구 민주당원 급증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바람이 거센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민주당 입당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당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당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앞다퉈 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차원에서 자신의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안풍'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당원 숫자가 오히려 줄거나 정체됐지만, 지난 3월이

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당비를 내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입당자가 급증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병폐인 당원 모집이 시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수는 20만8000여명으로 지난 2012년 12월에 비해 46명이 줄었으나, 2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입당자가 21명이었으나 ▲3월 2390명 ▲4월 5615명 ▲5월 7362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1만6000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 광주·전남 권리당원 하루 수백명 입당 1년 남은 선거 조기과열 부작용 우려

최근에는 하루 수백명씩 입당자가 몰려 입당 전산처리가 벅할 정도다. 특히 권리당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당비신청 당원도 지난해 1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2만5000여명으로, 1만2000여명 급증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5월 한 달간 4000여 명의 당원이 입당했다.

이런 민주당 경선 물이 모바일이 배제된 채 대의원(50%) + 권리당원(30%) + 여론조사(20%) 합산 방식으로 모아지면서 지방선거 입당자들

사이엔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내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숫자를 많이 확보할 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풍'을 의식한 민주당 차원의 당원 모집 운동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비 납부 예정 당원이 크게 늘었다"며 "매년 그랬듯이 지방선거 1년을 기점으로 권리당원 수가 급증하

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인정 기준일이 아직 변수이긴 하지만,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등록한 뒤 그 사이 당비(월 1000원)를 3회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오는 9월까지의 입당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아직 권리당원 인정 기준일이 내년 선거일(6월4일)이 될지, 후보자 등록일이 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전 등록과 당비 3회 이상 납부라는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금도 당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아마 8~9월이 당원 급가 '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5·18역사왜곡 종편·일베 11명 고소

### 대책위, 오늘 광주지검에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하한 11명에 대해 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등 5명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5·18을 폄하하는 사진 및 글을 올린 6명 등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고소주체는 5·18단체 임원이나 회원 등 당사자 42명이다. 대책위는 또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회 심의에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에 대해 '오지 않은 근거가 있으나' "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5·18 당시 북

한군 개입설을 방영한 채널A 관계자가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5·18때 북한군이 오지 않은 근거가 있으나 강변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채널A가 5·18 민주화운동의 법률·역사·사법적 사실을 호도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즉각 오월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군 개입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해 5·18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최고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방송위의 제재과정을 지켜본 뒤 시정거부를 비롯한 사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배기운 의원 7월 항소심 선고공판

### 나주·화순 입지자들 벌써 물밑행보

#### 10월 재선거 이뤄질지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의 10월 재선거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나주와 화순지역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 일부 예비 후보들이 벌써 물밑 행보를 펼치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후보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광주교법에 따르면 광주교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4일 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2~3월 회계 적인자인 김모(46)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법적인 선거비용 외 3700만원

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별도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배 의원의 직위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항소심 이후 배 의원이나 검찰 측의 상고가 당연시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재·보선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4~9월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30일)에 재·보궐 선거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9월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월 4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선고는 9월30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에 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을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행 규정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다. 배 의원 항소심 기간이 규정된 3개월을 훌쩍 넘어 7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배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고심 재판이 9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올 10월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美 새 국가안보 보좌관 수잔 라이스

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그의 측근인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 반크, 구글·애플·MS·페이스북과 전면전

### 독도·동해표기 바로잡을 때까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구글·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이 일본의 집중 로비에 걸려들

어 얽힌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역사적으로 공인된 동해의 표기를 거부하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한국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크는 6일 '반(反) 디지털 제국주의' 활동의 최선봉에 나설 365명의 전

사를 선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제국' 내의 독도·동해 지키기와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는 운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크가 365명의 정예 전사를 양성 하려는 까닭은 나뭇잎 방울이 지속해 떨어지면 물을 뚫는다는 교훈처럼 1년 365일 1명의 전사가 정해진 날짜에 디지털 제국 기업의 회장에게 국재우편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연합뉴스

## "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논문 소개

업무로 말미암은 극도의 피로, 이른바 '소진 현상'(burnout)을 경험한 고용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는

정말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

보건의로 분야 시민사회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핀란드 연구논문 '산업 노동자의 총 사망률 예측 변수로서의 소진현상'을 소개했다.

연구자들은 10년 넘는 기간 노동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소진현상을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심리적 반응'으로, 노동자 고유의 에너지 자원을 점차로 고갈시키며, 일시적인 피로(fatigue)와는 달리 과거의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직업 능력 감소 등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합산해 소진현상이란 지표를 산출했다.

/연합뉴스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ASSET KOREA since 2005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치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대 18억(보1.5억 월910만 수익)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 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 대지/전답

-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 시설 완비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대가 협의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대가 협의

#### 수익형 구분점포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대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기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대 35억(임대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류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94억 최저가1.1억

#### 토지매매

- ▶회송읍 연양리 자연녹지 답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영천 부동산

###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